

# ESPN의 월드컵 예측 “한국, 2승1무로 16강 진출할 것”

카타르월드컵 전경기 예측...韓, 조별리그 통과 전망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 일 수 있지만 전성기에 열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에 진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ESPN은 6일(한국시간) 카타르월드컵 전경기 예측을 통해 한국의 조별리그 통과를 전망했다. 예측에 따르면, 한국은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함께 속한 H조에서 2승1무로 포르투갈과 함께 16강에 진출한다.

ESPN은 한국이 우루과이에 1-0, 가나에 1-0 승리를 거둘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손흥민(토트넘)의 마지막 월드컵 일 수 있지만 전성기에 열리는 대회”라고 언급했다. 조 최강으로 평가받는 포르투갈과의 최종 3차전은 0-0 무승부로 봤다. ESPN은 앞서 2차전까지 끝나면 한국과 포르투갈의 16강 진출이 확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한 게 유일한 원정 월드컵에서의 토너먼트 진출이다.

조별리그뿐 아니라 전 경기에 대한 예상을 이어가며 브라질-프랑스, 잉글랜드-독일의 4강 대진을 예측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브라질이 우승컵을 들어올릴 것이라는 게 ESPN의 전망이다. 한편,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선 비관적으로 봤다. A조의 카타르는 3패, B조의 이란은 1무2패, C조의 사우디아라비아의 3패로 대회를 마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페인, 독일과 함께 ‘죽음의 조’ E조에 편성된 일본은 1승2패로 탈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 김천 조규성, K리그 ‘3월 가장 역동적인 골’ 주인공

G MOMENT AWARD 주인공 선정

프로축구 K리그1(1부) 김천 상무의 공격수 조규성이 3월 가장 역동적인 골을 터뜨린 주인공이 됐다. 프로축구연맹은 6일 “조규성이 3월 가장 역동적인 골을 넣은 선수에게 수여하는 ‘G MOMENT AWARD(게토레이 승리의 순간)’의 주인공이 됐다”고 전했다. 조규성과 이승우(수원FC)의 경쟁이었다. 조규성은 지난달 6일 열린 FC서울과 4라운드에서 후반 13분 각이 나오지 않는 위치에서 강력한 왼발슛으로 골을 터뜨렸다. 이승우는 대구FC와 6라운드에서 전반 11분

페널티박스 외곽에서 패스를 받아 수비수와 몸싸움을 극복하고 K리그 데뷔골을 터뜨렸다. ‘G MOMENT AWARD’는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K리그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팬 투표 100로 수상자를 정한다. 조규성이 총 1만139표(64.2%)를 지지 받아 이승우를 5642표(35.8%)를 압도했다. 조규성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함께 트로피가 전달된다. 조규성은 “김천 구단 최초로 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다. 수상을 위해 투표해주신 팬들께 감사하다. 앞으로 공격수로서 더 많은 득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 울산 홍명보 감독, 시즌 첫 ‘이달의 감독상’ 수상

프로축구 K리그1(1부) 울산 현대의 단독 선두를 지휘하고 있는 홍명보 감독이 2022 시즌 첫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했다. 프로축구연맹은 6일 “홍명보 울산 감독이 시즌 첫 K리그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홍 감독이 이끄는 울산은 지난 2-3월 시즌 초반 6경기에서 5승1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며 선두 체제를 다졌다. 김천FC와 개막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으나 이후 5경기에서 내리 승리를 따

냈다.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 ‘동해안 데비’의 라이벌 포항 스틸러스를 비롯해 성남 FC, 수원FC, FC서울을 모두 꺾었다. 울산은 해당 6경기에서 9득점 2실점으로 K리그1 최다 득점, 최소실점을 기록하며 공수의 안정적인 밸런스를 자랑했다. 지난해 울산 감독 데뷔 시즌에 아깝게 준우승에 만족한 홍 감독은 8라운드까지 6승2무(승점 20)로 단독 1위를 이끌고 있다. 홍 감독에게는 프로축구연맹이 제작한 기념 트로피가 전달될 예정이다.

## 러시아, 카타르월드컵 출전 무산...FIFA 제재 수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FIFA로부터 제재

러시아축구협회(러시아)가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축구연맹(FIFA)의 대회 출전 금지 제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6일(한국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축구협회가 러시아의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한 FIFA의 제재에 대해 스포츠총재재판소(CAS)에 제기했던 항소를 철회했다. FIF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어

지자 국제대회 출전 금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유럽축구연맹(UEFA) 등 타 종목도 동참했다. 2022 카타르월드컵 유럽예선 플레이오프를 앞둔 러시아는 출전 기회를 잃었다. 러시아의 상대였던 폴란드는 부전승을 거뒀고, 최종적으로 스웨덴까지 꺾으며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상대였던 폴란드, 러

시아와 대결 가능성이 있었던 스웨덴, 체코가 모두 러시아와 경기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이 과정에서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달 CAS는 FIFA, UEFA의 제재를 유예해 달라는 러시아축구협회의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러시아축구협회는 항소를 철회했지만 빙산, 렉비, 조정, 체조 등 다른 종목에선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스

## 순천시,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개최

오는 10일까지 순천 팔마체육관서 24개국 650여명 참가



순천시는 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6일간 순천시 팔마체육관에서 ‘2022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1991년부터 시작한 코리아오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메이저급 국제대회로 국제배드민

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500등급으로 분류되고, BWF를 통해 세계 각국에 생중계된다. 이번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는 지난 2019년 인천에서 열린 이후 3년만에 개최되는 만큼, 24개국의 최고 기량을 갖춘 선수

650여 명이 실력을 겨룬다. 한국 배드민턴의 전설인 이용대와 여자단식 간판 안세영, 여자복식의 이소희-신승찬, 김소영-공희용 등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총출동하고, 외국인 선수로는 2020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랭킹 3위인 첸유페이(중국), 인도 배드민턴의 영웅이자 2020 도쿄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푸살라 신두(인도)가 출전한다. 특히 한국 여자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은 세계랭킹 4위로 자신의 생애 첫 코리아오픈 우승을 노린다. 지난 3월 전영오폰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한국 배드민턴의 전설이자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대회 남자복식 통산 6회 우승자인 이용대는 김재현과 짝을 이뤄 코리아오픈 통산 7회 우승 기록에 도전한다. 순천시 순천시 부시장은 “순천시를 방문하는 모든 배드민턴 가족 여러분을 환영한다.”라며,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선수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를 관람하고 즐기면서 더불어 순천시의 벚꽃길과 도시에 펼쳐진 정원을 함께 즐기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 달라진 김하성, 시범경기 타율 0.367로 마무리

빅리그 2년차 맞는 김하성, 타격감 끌어 올리며 시즌 준비 끝

메이저리그 2년 차 김하성(27)이 시범경기를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김하성은 6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의 피오리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시범경기에는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 1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인 김하성은 타율 0.367(30타수 11안타)로 시범경기를 마쳤다. 시범 13경기를 치르며 홈런은 1개를 때려냈고, 타점과 득점은 5개, 7개씩을 올렸다. 볼넷 5개를 골라내는 동안 삼진은 6개만 기록했다. 빅리그 입성 첫 해였던 지난해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김하성은 지난해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타격 적응에 애를 먹었다. 19경기에서 나서며 타율 0.167(42타수 7안타), 1타점 1득점에 그쳤고, 홈런은 하나도 없었다. 볼넷 9개를 얻어내며 삼진은 15번이나 당했다. 타격 부진은 정규시즌으로도 이어졌다. 김하성은 지난 시즌 117경기에서 타율 0.202, 8홈런 34타점 27득점을 작성했다. 안정적인 수비 능력을 인정 받았지만 방망



이에선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는 다르다. 지난해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김하성은 타격감을 한껏 끌어 올리고 시즌을 맞이한다. 이날 김하성은 2회 무사 1, 2루에서 볼넷을 골라 만루 찬스를 연결했고, 4회 무사 2루에선 우전 안타를 때려냈다. 6회초 수비를 앞두고 교체돼 이날 경기를 마쳤다. 한편, 샌디에이고는 마지막 시범경기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6-9로 졌다. 올해 시범경기는 7승9패로 마무리했다. 7일 휴식을 취하는 샌디에이고는 8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2022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 ‘골프 황제’의 필드 복귀

타이거 우즈, 마스터스 출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7)가 필드로 돌아온다. 우즈는 6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로는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 같다”며 마스터스 출전 계획을 밝혔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 골프 대회는 오는 8일 시작된다. 대회 참가뿐 아니라 우승도 노린다. 우즈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귀했다”며 “나는 경쟁을 좋아하고, 여전히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이 우스트히즌(남아공), 호아킨 니만(칠레)와 함께 치르는 1라운드는 7일 밤 11시34분 시작된다. 우즈의 정규 투어 대회 출전은 2020년 11월 마스터스 대회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지난해 2월 운전 중 큰 사고로 오른 다리에 복합 골절상을 당해 선수 생활의 큰 위기를 맞았다. 부상 정도가 심해 한때 절단설까지 돌았지만 다행히 재활 끝에 건강을 되찾았다. 우즈는 “72홀은 먼 길이고 힘든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도 “내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뉴스스